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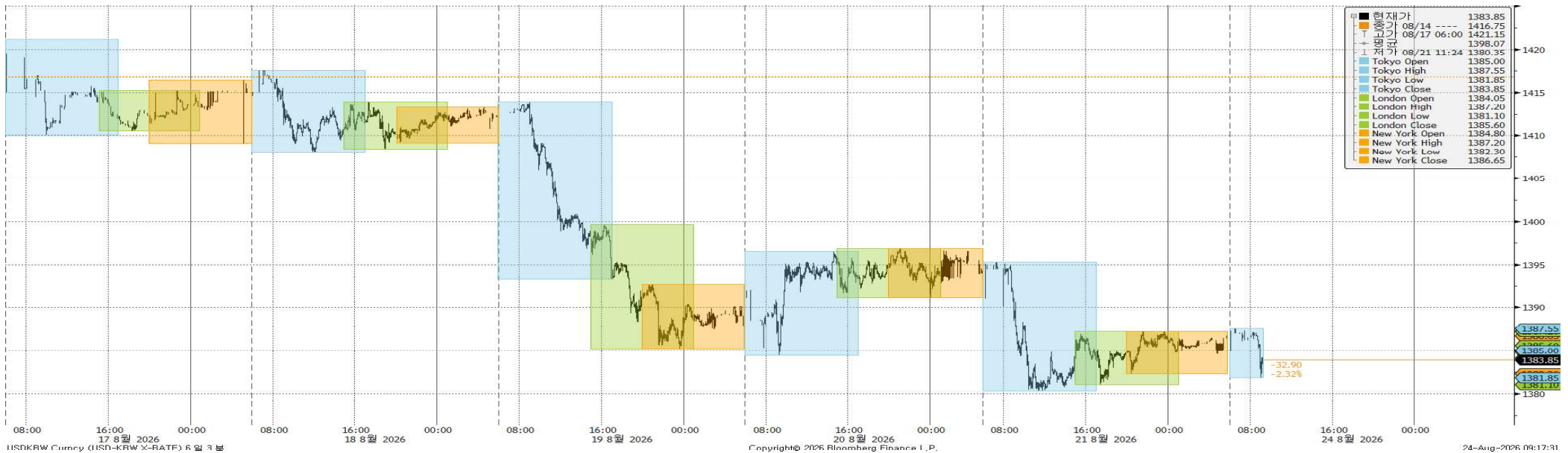


Hana FX Weekly Letters

2026. 8. 24

USD/KRW Weekly Market Trends (8/17~8/21)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원화환율	1,416.0원	1,420.0원	1,380.3원	1,386.0원	-30.0원
NDF(종합)	1,416.0원	1,418.3원	1,380.0원	1,385.9원	-30.1원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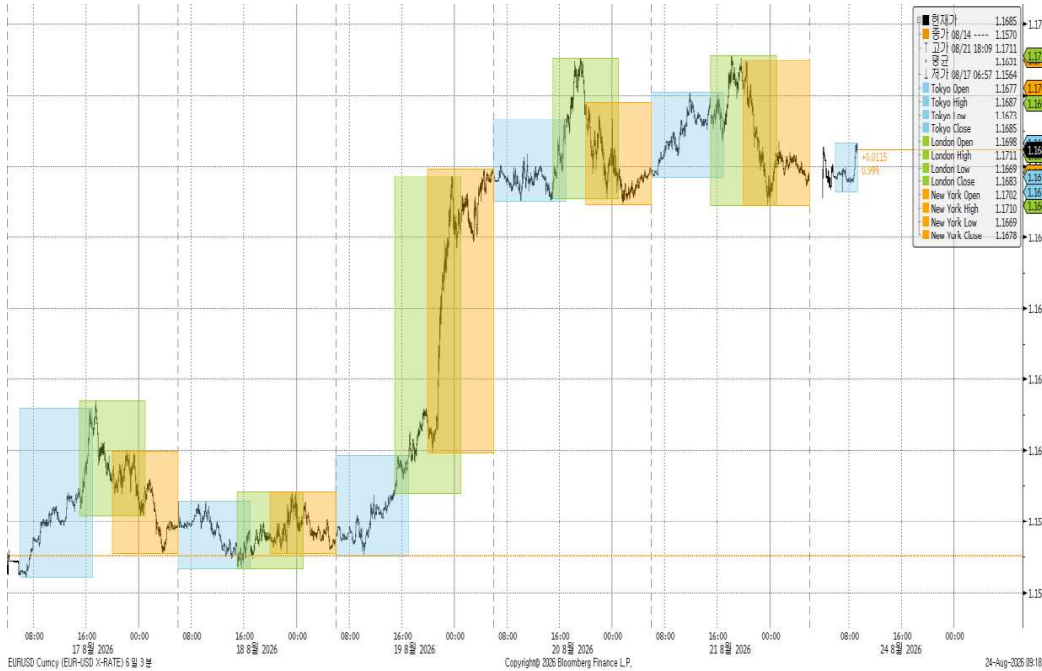
- 주초, 연휴로 인해 제한된 거래 속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와 BOJ 조기 긴축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가 달러 약세를 견인하자 환율은 1,410원대에서 소폭 하락 출발. 이후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과 글로벌 위험회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짐
- 중반, 미국 재정적자 이슈에 따른 달러 신뢰도 저하 우려 등에 달러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 여기에 역내외 달러 매도세도 집중되면서 환율은 20원 이상 급락해 1,380원대 후반까지 내려앉음
- 후반 들어,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소식으로 미 국채 오름세가 주춤해지며 달러 약세가 이어졌으나, 저가 매수세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일부 반등. 이어 주 후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예고 등 중동 긴장에도 역내외 달러 매도세로 하방 압력을 받으며 1,386.0원에 마감

주간 전망: 1,375원~1,395원

- 금주 달러/원 환율은 대외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미 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로 인한 미 국채금리 상승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갈등, 중동 긴장 국면 등 대외 여건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있음. 이는 환율 상승 요인이거나, 달러 신뢰도 저하 문제로 인해 달러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 상방 압력은 제한될 전망
- 반면, 대내적으로는 지난달에 이어 8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이 원화에 힘을 싣고 있음. 이달 회의에서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조될 경우 한-미 금리차 축소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임. 여기에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역외 매도세 등 매도 우위의 수급 여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금주 달러/원 환율은 추가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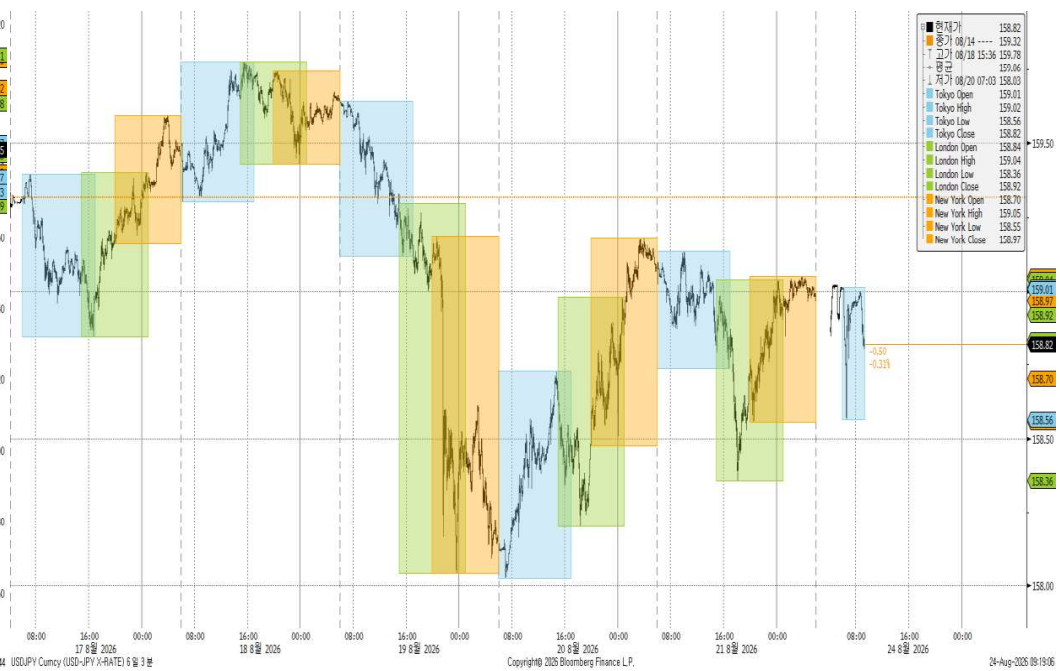
EUR/USD Weekly Market Trends (8/17~8/21)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유로/달러	1.1571	1.1711	1.1564	1.1679	+0.0108



USD/JPY Weekly Market Trends (8/17~8/21)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달러/엔	159.3	159.8	158.0	159.0	-0.3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낙관론 속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며 출발. 그러나 미-이란 양해각서 연장 불발 등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 이에 유로화는 소폭 약세로 돌아섬
- 중반, 미재정적자 문제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 재무부의 바이백 규모 확대 발표가 이어짐. 이로 인해 미 국채 금리와 달러인덱스가 하락하자 유로화는 1.16달러대로 급등
- 후반, 독일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에 ECB 긴축 경계감이 유입되었으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강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보합세를 기록. 이어 주 후반,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성장세가 확인되자 유로화는 소폭 강세를 보이며 1.16달러대에서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 우려로 국제유가가 상승, 이에 일본 경제의 리스크 확대 부담감이 커지며 엔화는 약세로 출발. 이어 유가 불안 속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며 엔화의 약세 폭도 확대되었으나, 160엔선 부근에서는 당국 개입 경계감이 강화되며 159엔 중후반대에서 등락
- 중반 들어, 미 재무부의 국채 금리 안정 조치 발표로 미 장기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달러 약세와 미-일 금리차 축소 기대감이 맞물리며 엔화는 강세 흐름 속 158엔대로 급락
- 후반, 미-이란 간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재차 급등한 가운데, 일본 수입업체들의 달러 매수세 등 실수요도 유입되자 다시 약세로 돌아서며 159엔대 재진입. 이어 주 후반, 일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9%로 상승폭을 확대, 이에 BOJ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자 엔화 약세 흐름이 다소 주춤해지며 159엔선 부근에서 마감

KTB Weekly Market Movements (8/18~8/21)

종 목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국고채 금리 (3y)	3.796%	3.811%	3.854%	+0.05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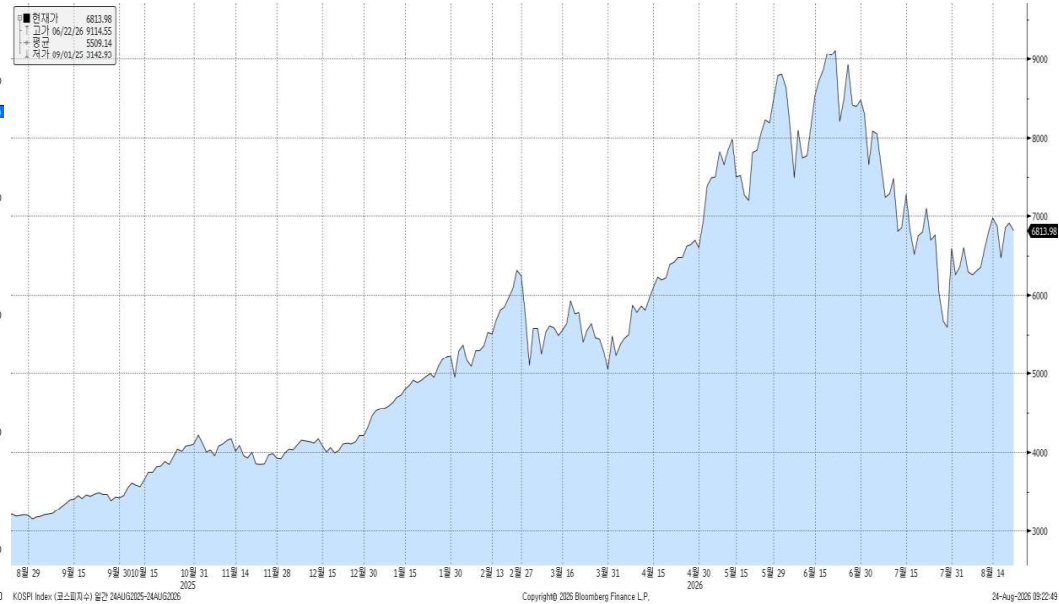
자료 : 블룸버그

주간 국고채 시장 동향

- 주초, 미-이란 종전 MOU가 별 소득없이 만료된 가운데 해당 영향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미국채시장에 비 우호적 영향을 전이 시킴. 여기에 국고채 입찰이 진행된 점도 수급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 중반 들어, 증시 부문에서의 반도체 주가 하락 영향에 따른 위험회피 분위기가 나타난 측면이 채권시장에는 전반적인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확대 등으로 금리 하락 전환 시현
- 후반 들어, 대내외 금융환경의 상반된 영향이 반영되며 국고채 장기 구간은 미 국채 바이백 소식 등의 영향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단기 구간은 한은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 및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현, 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흐름 보이며 장단기 구간별로 차별화된 흐름 시현. 이어 주 후반, 전일 미 국채시장의 바이백 영향 약화 및 국제유가 5거래일 상승 등의 영향이 반영되며 상승 전환 마감

KOSPI Weekly Market Movements (8/18~8/21)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KOSPI	6,995.6pt	7,216.6pt	6,400.8pt	6,912.9pt	+99.6pt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전일 뉴욕증시의 반도체 호조에도 미-이란간 갈등 완화 기미가 부재함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 등이 반영되며 하락 출발
- 이어 중반 들어, 미국 등 글로벌 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가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전이되면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 매물 출회가 강화된 가운데 증등 정세 불안의 유가 자극 등의 변동성 확대 반영 양상 시현
- 후반 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주주환원정책 소식 과 미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에 의한 국채 금리 진정세 등이 반영되며 6% 가까이 상승 흐름 시현. 이어 주 후반, 미 국채 금리 재상승 우려가 상존했음에도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 영향 지속 및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상승 추세 이어지며 마감

주간 주요 경제지표 일정

[illegible]